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 입 당            | 예물 준비                | 영성체             | 파 견             |
|----------------|----------------------|-----------------|-----------------|
| 435<br>(어린이처럼) | 213<br>(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 166<br>(생명의 양식) | 400<br>(주님과 나는) |

### 제 1독서 |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 화답송 |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좌)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우)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좌)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 제 2독서 |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 복음 | 요한 6,24-35

### 영성체 후 묵상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발걸음과 마음을 돌려 하느님께로 나아가며, 그분께 신뢰를 둘 수 있다면, 제 1독서 탈출기의 말씀처럼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Today's Gospel, <John 6,24-35>

When the people saw that neither Jesus nor his disciples were there, they got into boats and crossed to Capernaum to look for Jesus.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they said to him, 'Rabbi, when did you come here?' Jesus answered:

'I tell you most solemnly, you are not looking for me because you have seen the signs but because you had all the bread you wanted to eat. Do not work for food that cannot last, but work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the kind of food the Son of Man is offering you, for on him the Father, God himself, has set his seal.'

Then they said to him, 'What must we do if we are to do the works that God wants?' Jesus gave them this answer, 'This is working for God: you must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So they said, 'What sign will you give to show us that we should believe in you? What work will you do? Our fathers had manna to eat in the desert; as scripture says: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esus answered:

'I tell you most solemnly, it was not Moses who gave you bread from heaven,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bread from heaven, the true bread: for the bread of God is that which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Sir,' they said 'give us that bread always.' Jesus answe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be hungry;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그때에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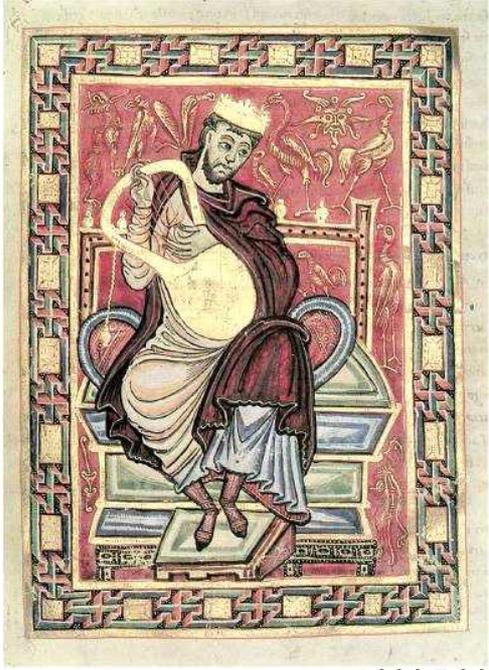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0세기경 독일의 시편집>

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자애 등 여러 가지가 하느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집이 삶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책에 들어 있는 찬양시편들은 삶의 굴곡 속에서 멈추어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순간들이 됩니다.

개별 시편들의 저자는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저자가 있기는 했겠지요. 그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것이고, 슬픔 속에서 하느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기도가 되어 갑니다. 마치 어떤 계기로 노래 가사를 쓰거나 곡을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되듯이,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이들의 것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 시편들이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것은 아마도 기원전 2세기 무렵일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200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바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그 기도를 바쳤던 사람과 지금의 우리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공감대, 그것이 시편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시편에서 저자는 자주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시편 40,18). 시편은 주님께 피신하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입니다. 시편이 얼마나 진실하게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어느 만큼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비례합니다. 탄원이 찬양보다 더 많은 구약의 시편집은 분명 태평하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삶을 헤쳐갈 수 없음을 아는 약한 이들의 기도, 훌륭하고 좋은 것 역시 내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오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쁨 가운데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편의 기도들은 하느님을 임금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이런저런 힘들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편을 노래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  
(시편 145,13).**

시편은 한 시대 한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대개 연대도 저자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와 그 안에서 만났던 하느님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150편의 시편들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시편집의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집이 온통 기쁜 찬양의 노래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는 오히려 탄원시편의 수가 찬양시편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기도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찬양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여러 종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탄원시편과 찬양시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시편에서 기도자는 하느님을 부른 다음 자신의 처지를 하느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가 자신만을, 자신의 고통만을,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길을 하느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시편 42,6). 하느님께 부르짖는 탄원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과 나 사이의 결합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 갑니다.

한편 찬양시편에서는 흔히 첫머리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이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 줍니다. 창조의 놀라움, 역사 안에

## 공지 사항

### 1. 성모 승천 대축일 한인 미사 안내

- 일시: 8월 15일(목), 저녁 7시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의무대축일 (Holy day of Obligation)입니다. 한인 미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거주지 근처의 로컬 성당 미사에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대전교구 손님 신부님 방문

손님 신부님 3분께서 '다음주 주일 미사(8월 11일)와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에 오시어 함께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사 전 고해성사는 손님 신부님께서 집전해드립니다.

### 3. 견진성사 신청 안내

- \* 신청 기한: 8월 25일까지
- \* 견진 교리: 총 4번
- \* 교리 일정: 9월 1일부터, 매 주일 13:00~ 14:20
- \* 견진성사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미사 중
- \* 견진성사는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        |             |         |
|--------|-------------|---------|
| 7월 21일 | 유아·청소년: 28명 | 성인: 49명 |
| 7월 28일 | 유아·청소년: 29명 | 성인: 56명 |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                           |       |
|---------------------------|-------|
| 화                         | 저녁 7시 |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       |
| P/W: 69g58g               |       |

### | 전례 독서 봉사자 |

|                 |                   |
|-----------------|-------------------|
| 이번주<br>(8월 4일)  |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
| 다음주<br>(8월 11일) |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                 |     |
|-----------------|-----|
| 이번주<br>(8월 4일)  | 요한반 |
| 다음주<br>(8월 11일) | 루카반 |

### | 우리들의 정성 | (7월 27일 ~ 8월 2일)

|       |          |      |     |     |
|-------|----------|------|-----|-----|
| 봉 헌 금 | \$390.45 |      |     |     |
| 교 무 금 | \$490    |      |     |     |
| 권묘순   | 김요한      | 남궁영근 | 양홍석 | 윤현태 |
| 이지영   | 장호훈      | 전인철  | 정은영 | 조성희 |
| 주정자   |          |      |     |     |

###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